



급변하는 ICT 융합시장과  
기술환경 변화에 대응하며,  
끊임없이 혁신하는 TTA가 되겠습니다

1988년 우리나라 정보통신 표준화 전담기관으로서 첫발을 내딛은 TTA가 어느덧 창립 3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정보통신 산업은 빠르게 성장하여 명실공히 관련 기술과 산업을 선도하는 세계적 ICT 강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세계가 지식정보화시대를 대비하고 정보통신 기술 개발과 표준화에 매진하고 있던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ICT는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가 크게 벌어져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와 산업계, 학계 및 연구기관이 합심하여 ‘우리는 산업화에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 가자’는 목표를 두고 ICT 발전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눈부신 성장을 이루고, 세계 ICT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어떤 나라보다 빠르고 편리한 인터넷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방송 분야에서는 기존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방송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 왔습니다. 이동통신에서도 한 발 앞서 차세대 서비스를 선보일 때에도 언제나 세계 최초라는 ICT 종주국의 영예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TTA는 우리나라 ICT 표준화 전문기관으로서 국제 표준화기구와의 활발한 교류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 기술표준의 세계화에 앞장서 왔으며, 국제 수준의 고품질 시험·인증 서비스 제공을 통해 우리나라 ICT 제품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데 적극 기여하면서 정보통신 분야의 글로벌 표준 및 시험·인증의 리더로 발돋움하였습니다.

이에 우리나라 정보통신의 발전을 함께 이끌어 온 정부·산업계·학계·연구기관과 전·현직 TTA 임직원들의 노고에 대한 보답의 마음을 담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30년사〉를 내놓게 됐습니다. 이는 오늘날 세계를 누비고 있는 우리 ICT 성장과 발전의 흔적과 발자취를 담은 소중한 기록이 될 것입니다.

세계는 지식정보화사회를 넘어 전 산업 분야와 ICT 기술의 융합을 기반으로 한 지능정보화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 거대한 시대의 변화 속에는 기회와 위기의 모든 가능성이 복잡하게 얹혀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TTA가 맞이하는 30주년의 의미는 각별합니다. 우리 앞에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는 새로운 혁신의 시대를 당당히 마주하며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 할 사명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30년사〉 발간을 통해 지난 30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과거를 돌아보고 끊임없는 혁신으로 세계를 품는 또 다른 30년을 준비하는 새로운 각오와 다짐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8년 8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회장

183 24 12